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9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면 2길 6번지

2016년 2월 2일 화요일 (음 12월 24일) 제 14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네...”

설 준비 주부들 장보기 두렵다

유례없는 폭설 등으로 채소·과일류 가격 상승
육류는 등락 거듭...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저렴

“안파라든지 채소 값이 너무 올랐네요. 사긴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만 사야 할까 봐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를 준비하는 전주 효자동 박모(40·여)씨의 푸념이다. 박 씨의 경우처럼 최근 주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설 차례 상 준비 때문이다. 올해 설은 유례없는 폭설과 구제역 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1일 농협중앙회전북본부가 발표한 채소과일류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한파와 강설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양파와 채소류인 무, 파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1kg)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6.1% 오른 2,575원에, 대파(1kg)는 같은 기간 62.4% 오른 3,903원에 팔리고 있다. 무(개) 역시 전년에 비해 41.9% 오른 1,752원에, 배추(포기)는 41.1% 오른 2,777원에 거래되고 있다. 과일류 중에서는 사과(부사, 10개 중품)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2,729원 하락한 2만1,928원 배(신고 19개 중

품)는 1.103원 떨어진 2만40원에 거래됐다. 육류는 사육두수 감소와 구제역 여파로 등락이 거듭되고 있다. 1월 한우 도매값이 지난해보다 25% 오른 1만7,000~1만9,000원 선(지육 1kg 기준)을 오르내리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한우갈비 100g)는 지난해보다 13.5% 오른 5,115원, 돼지고기(지육1kg)의 경우 지난해 보다 14.4% 내려간 3,93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닭고기는 공급량이 늘어나 산지 육계(1kg)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24.8% 떨어진 1,235원, 계란(특란 10개)은 24.1% 감소한 987원에 구입할 수 있다. 수입 산이 주로 거래되는 수산물도 명절이 다가올수록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렇다하면 설 명절 차례 상 준비는 어디에서 비용을 얼마나 들여갈까? 결론은 전통시장이 19만원, 백화점은 3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장소기업 투자 협약 전북도와 익산시는 1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한용재 익산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도의원, 참여 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델소재 및 ㈜아이니와 익산(관련기사 2면) 중설 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1일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상차림 비용(4인 기준 2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15.3% 저렴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전주

시내 총 24곳의 설 제수상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설 제수용품 평균 구입비용은 총 23만8,339원으로 전년 20만8,258에 비해 14.4% 올랐다. 업체별로는 전통시장이 19만802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이어 대형마트 23

만1,039원, 백화점이 30만6,031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한파, 폭설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대파와 쇠고기 등의 가격이 폭등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구제역 조기종식 모범사례 되나

전북도가 구제역 조기종식의 좋은 모범사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 구제역이 지난 18일 고창에서 2차 발병한 이후로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북지역 폐지반출금지령이 해제되는 등 '구제역 사태 종식'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고창지역 이동제한해제가 되기까지는 열흘정도 남아 있어 도는 경계를 늦추고 있던 양이나 도내 축산농가들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1일 도는 “김제지역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시 이동제한을 해제하겠다”며 “이

동제한 해제시기는 4일쯤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0일 자정, 전북지역 폐지반출금지령을 해제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고창과 김제 농가에서 폐지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지났고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반출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던 김제, 익산, 정읍 지역 등에 있는 우제류의 항체 생성률도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11일 최초 구제역 발생 이후

신속하게 예방백신을 접종해 지난 15일 이전에 김제, 익산, 정읍 등 위험지역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도내 140만두의 우제류에 대해 100% 백신 접종이 완료(29일 기준)된 상태이다. 고창지역은 오는 12일 무렵 이동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고창지역 살처분 완료 후 21일이 경과되는 시일은 오는 10일이나 임상·환경 검사가 이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영수 기자

폐지반출금지령 해제 등 수순 밟고 있어

김제지역은 오는 12일 무렵 이동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고창지역 살처분 완료 후 21일이 경과되는 시일은 오는 10일이나 임상·환경 검사가 이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 정기인사 단행

설 명절 앞서 77명 승진
전주시가 설 명절에 앞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기인사를 단행해 직급승진 4급 1명, 실사승진 5급 사무관 10명 등 총 77명이 승진했다. 최은자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가 4급 서기관으로 직급 승진만 했을뿐이고 고위직 승진인사에 관심이 집중된 4급 서기관은 사실상 승진 인사가 없었지만 바꾸는 방식으로 인사가 결정됐다. 이번 인사에 따라 6급은 46명, 7급은 18명, 8급으로는 2명이 승진했다. /김영재 기자

다함께 열거하는 으뜸도시 **완주**

완주 으뜸상품권과 함께 행복한 '설날' 우리 이웃의 행복을 키웁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완주 으뜸상품권!

완주 으뜸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표 "으뜸상품권"으로 지난 5월, 상품권 제작을 시작으로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 등 관내 12개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00여개 가맹점을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사용한 완주 으뜸상품권이 우리 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완주군 내 소재한 모든 농협에서 액면금액의 3% 할인 판매 으뜸상품권 사용처 | 유통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의 으뜸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으뜸상품권 구매처 | 관내 지역농협

문의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290.2402) 및 읍면사무소